

저는 이명숙 수녀입니다. 종갓집의 3남 2녀 가운데 장녀로 태어나 직장생활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32살 초에 무기력에 빠져 힘든 시기를 보낼 때, 11살 터울의 여동생 권유로 천주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입교식 날, 예비신자교리 담당 신부님께서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였는데 깜깜한 성당에 들어서자 저 멀리 빨간 불(성체등)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향하여 “하느님, 제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신자교리를 받으면서 본당 청년연합회 피정에 참석하여 안양(현재 의왕시 소재) 라자로 마을 예수성심 성모성심 성당에서 성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1989년 세례를 받고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직장 동료 세 명을 통해 각각 세 번이나 저를 크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세례 받은 지 1년 8개월 만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1991년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사도직은 노인사목으로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양로원에서 노인요양원, 전문요양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겪으며 노인사목에 헌신했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광주대교구 교회법원 공증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을 거쳐 현재는 본당에서 성령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소명을 다하고자 의식합니다.

저는 본당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시각으로 봅니다.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뵈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나이 들은 하느님께 감사와 아름다움입니다.





I am Sister Myung Suk Lee, the eldest of three sons and two daughters in my family. When I was thirty-two years old and going through a difficult period of lethargy, I was introduced to Catholicism by my 11-years younger sister. On the day I began RCIA, my catechist (my parish priest at that time) told us to go to church, pray, and go home. In fact, I didn't know how to pray, but when I walked into the dark church, I saw a single red light (alter lamp) in the distance. I prayed to God, "**God, no matter what happens to me, please help me not to leave You.**" and went home.

While participating in the RCIA, I attended a parish youth association retreat which was held at Our Lady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Church in Lazaro Village, Anyang (now Uiwang City), and began to be interested in religious life. I didn't recognize God's call until after my baptism in 1989, when God called me three times each through three different co-workers. I answered the call a year and eight months after my baptism and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n 1991. My first ministry was in geriatric



chaplaincy, where I committed myself to my responsibility through the transition in nursing facilities from assisted living to skilled nursing as a result of an aging society.



I went on to work at the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the Notary Public of the Church Court of the Archdiocese of Gwangju, and the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am now conscious to listen to **the movement of the Holy Spirit** and fulfill his calling at the parish. I see the parish as a comprehensive social service center. I love it because I get to meet various people who are in the process of

journey from birth to death, and I get to see the living God in them.

For me, growing older is a time of gratitude and beauty to God.

